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스핑크스의 현대적 변용과
페티시즘(Fetishism)에 관한 도자조형 연구

A Study of Formative Ceramics on Contemporary
Sphinx and Fetishism

2015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백 주 하

스핑크스의 현대적 변용과 페티시즘(Fetishism)에 관한 도자조형 연구

지도교수 이 명 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백 주 하

백주하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요 약

제 목 : 스펡크스의 현대적 변용과 페티시즘(Fetishism)에 관한
도자조형 연구

최근 각 분야에서 페티시즘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대체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도착적인 성적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원래보다 축소된 부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원전 주물숭배(fetishism)에서부터 현대 소비사회의 물신숭배(fetishism)에 이르기까지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페티시즘에 대해 살펴보고 조형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의 대 스펡크스(The Great Sphinx)는 남성형이고 주물숭배의 대상이었으나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스펡크스는 날개가 달린 여성형이며, 19세기 유럽의 상징주의 화가들은 스펡크스를 판므 파탈로 묘사한다. 오늘날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는 레이디 가가(Lady Gaga)는 판므 파탈 이미지의 대표적 슈퍼스타이다. 그렇다면 스펡크스와 레이디 가가는 판므 파탈 이미지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페티시즘(주물숭배, 물신숭배)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으로 또다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물숭배(fetishism)의 대상이었던 고대 스펡크스(Sphinx)의 기원과 변천사에 대해 분석해보고 그 상징적 형태와 이미지를 자본주의 물신숭배(fetishism)의 대상이 된 레이디 가가(Lady Gaga)에 적용하여 각각의 이질적 상징요소의 결합 변형체를 조형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한 페티시즘의 단면을 보여주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고대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19세기 스펡크스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다음 현대 자본주의의 물신적 특징 중에서 레이디 가가의 물신을 하이힐, 콘브라, 연출된 육체의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작품으로 제작된 스펡크스는 A, B, C type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작품 A type의 특징은 하이힐의 변형으로서 Double Heels, B type은 2단 분리형 벅 부조, C type은 이질적 상징요소를 결합, 변형한 Figure 형태로 제작한다.

작품제작에 사용된 주요 소지는 백조형토이며, 성형방법으로는 입체 판 성형, 가압성형을 비롯한 복합성형 및 슬립 캐스팅이다. 작품에는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장식기법을 적용하고 색채장식을 위해 테라 시질라타와 고화도 색유약 및 Duncan 중화도 유약, 비소성 아크릴 제품 등을 사용하였다. 작품 소성방법으로는 대차식 전기가마에서 1000-1250℃ 산화소성으로 개별 혹은 삼별 소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고대인의 주물숭배에서 현대의 물신숭배에 이르기까지 페티시즘의 역사도 스펅크스의 역사와 같아왔다. 인간은 힘든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일단 부정, 회피, 왜곡하며 간편한 이상을 좇게 되는데 그 이상이 고대인에게는 주물로, 19세기에는 팜프 파탈이라는 성적 판타지로,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슈퍼스타라는 이미지 상품으로 그 대상의 모습이 변해왔을 뿐이었다.

작품으로 제작된 세 가지 타입의 스펅크스(레이디 가가의 하이힐, 콘브라, 연출된 육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페티시즘의 가시적 대상이며, ‘상품의 인격화’, ‘인체의 상품화’라는 주제는 페티시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페티시즘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목 차

요 약	i
표 목 록	iv
도판 목록	iv
작품 목록	vi
1.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2. 이론적 배경	4
2.1 스팅크스의 기원과 변천사	4
2.2 페티시즘의 이해	8
2.2.1 주물송배의 대상으로서 스팅크스	9
2.2.2 물신송배의 대상으로서 슈퍼스타	10
2.3 스팅크스와 페티시즘에 관한 작품사례 분석	12
3. 작품제작 및 해설	15
3.1 작품 A type_ Double Heels	17
3.2 작품 B type_ Cone Bra	24
3.3 작품 C type_ Figure	29
4. 결 론	37
참고 문헌	38
ABSTRACT	40

표 목 록

<표 1> 연구계획도표	3
<표 2> 스핑크스의 변화과정	9
<표 3> 현대 자본주의와 레이디 가가의 물신적 특징	12
<표 4> 스핑크스와 페티시즘의 관계 분석표	15
<표 5> 작품 도표	16
<표 6> Duncan사의 중화도 유약	19
<표 7> 고화도 투명유와 안료의 조합비	31

도 판 목 록

[도 1] The Great Sphinx of Giza. Egypt. ca. 2500 BC.	4
[도 2] Sphinx(Greek). South Italian. 5th-4th century BC.	5
[도 3] The Greek Sphinx. Attica. ca. 530 BC.	5
[도 4] Sphinx of Naxos at Delphi Museum. ca. 570 BC.	5
[도 5] Gustave Moreau 「Oedipus & the Sphinx」 1864	6
[도 6]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Oedipus et Sphinx」 1808	7
[도 7] Gustave Moreau 「Oedipus the Wayfarer」 1888	7
[도 8] Edvard Munch 「The Three Stages of Woman(Sphinx)」 1894	7
[도 9] Fernand Khnopff 「L'Art ou des Caresses」 1896	7
[도 10] Franz von Stuck 「The Kiss of the Sphinx」 1895	7
[도 11] The Great Temple of Amun at Karnak, with its row of Criosphinxes	9
[도 12] 표지모델로 등장한 레이디 가가	10
[도 13] 레이디 가가의 패션과 무대 퍼포먼스	11
[도 14] Niki de Saint Phalle 「Black Venus」 1965	12

【도 15】 Niki de Saint Phalle 「The Empress」 1983	13
【도 16】 Niki de Saint Phalle 「Le sphinx」 1989	13
【도 17】 Fernando Botero 「Mona Lisa」 1977	14
【도 18】 Fernando Botero 「Sphinx」 2006	14
【도 19】 Marc Quinn 「Alison Lapper Pregnant」 2005	14
【도 20】 Marc Quinn 「Self」 1991	14
【도 21】 Marc Quinn 「Sphinx」 2006	15
【도 22】 하이힐 기초 성형	18
【도 23】 하이힐 판 성형	18
【도 24】 반복적 모티브의 가압성형	18
【도 25】 흙판 재단	18
【도 26】 콘브라 드로잉	24
【도 27】 2단 분리형 구조의 도면 제작	24
【도 28】 벽면 부착방법에 대한 계획	25
【도 29】 Head 건조과정	25
【도 30】 가압성형한 콘브라	25
【도 31】 흙 재단 후 접합	25
【도 32】 결합부분인 목의 받침대	26
【도 33】 콘브라 전시장면	28
【도 34】 스펅크스 좌대의 이중 설계	29
【도 35】 본격적인 판 성형작업	29
【도 36】 일정한 두께의 밴딩 작업	30
【도 37】 코일링으로 성형 마감	30
【도 38】 투명유(대원도재 D5000) 비중 42	30
【도 39】 고화도 색유의 시편제작	30
【도 40】 라텍스 튜브 드로잉	32
【도 41】 라텍스 뜯어내기	32
【도 42】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장식기법	32

작 품 목 록

[작품 1] Friday Black Heels	20
[작품 2] Friday Red Heels	20
[작품 3] Shopping Heels for Mcdonalds	21
[작품 4] Shopping Heels for Starbucks	22
[작품 5] Shopping Heels for Apple	22
[작품 6] Lady Duchamp	23
[작품 7] Blue Cone Bra	27
[작품 8] Red Cone Bra	27
[작품 9] Trans-Gaga	33
[작품 10] Gaga Simpson	34
[작품 11] Sphinx Capital	35
[작품 12] The Great Red	36

5. 서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각 분야에서 ‘페티시즘(fetishism)’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도착적이거나 예로택한 성적이미지에 ‘페티시’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고, 이와는 무관해 보이는 ‘물신주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페티시즘은 어떤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서 원시종교 특유의 신앙에서 유래한 주물숭배(呪物崇拜)를 가리키지만, 이 후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상품세계의 물신적 성격에 관한 저술이 나옴으로써 사회과학 용어로서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대체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도착적인 성적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원래보다 축소된 부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원전 주물숭배(fetishism)에서부터 현대 소비사회의 물신숭배(fetishism)에 이르기까지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페티시즘에 대해 살펴보고 조형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팅크스의 대표적 이미지는 피라미드와 함께 연상되는 거대 스팅크스(The Great Sphinx)일 것이다. 또 신화에서 전하는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의 수수께끼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의 상징주의 화가 귀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가 그린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에는 색다른 스팅크스가 등장한다. 아름다운 얼굴, 힘과 권력의 상징인 왕관, 무기처럼 날카로운 원뿔형 유방, 공격적으로 활짝 편 날개, 붉은 허리장식, 날카로운 발톱 등이 스팅크스를 꺾트 파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꺾트 파탈(femme fatale)이란 치명적인(fatale) 여성(femme)이라는 용어 그 자체로 알 수 있듯이 ‘여성’과 ‘위험’ 혹은 ‘욕망’과 ‘공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또한 남성을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정도의 뇌쇄적인 매력을 지닌 강한 여성성을 이르는 말이다. 이전의 시대에서 꺾트 파탈은 분명 악녀의 원형으로 터부시하였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여성은 그 이미지를 동경하며 소비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사회 체계의 변화는 물론 젠더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현대에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는 슈퍼스타는 인격체이기 보다는 살아있는 이미지상품으로서 대량 소비되고 있는데 그중 미국의 꺾트파 레디 가가(Lady Gaga)는 꺾트 파탈 이미지의 대표적 슈퍼스타이다. 그렇다면 스팅크스와 레디 가가는 꺾트 파탈 이미지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페티시즘(주물숭배, 물신숭배)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으로 또다시 연결된다.<표 1>

본 연구자는 페티시즘의 상징적 형태로서 스핑크스를 선택하고 이에 걸 맞는 현대적 물신으로 슈퍼스타 레이디 가가를 선택하였다. 난해하고 도발적인 팝트 파탈 패션과 파격적인 쇼 퍼포먼스, 그리고 그로 인한 핫이슈의 주인공으로 주목받는 그녀는 자본주의 소비문화 전반에 걸친 페티시즘의 상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물숭배(fetishism)의 대상이었던 고대 스핑크스(Sphinx)의 기원과 변천사에 대해 분석해보고 그 상징적 형태와 이미지를 자본주의 물신숭배(fetishism)의 대상이 된 레이디 가가(Lady Gaga)에 적용하여 각각의 이질적 상징요소의 결합 변형체를 조형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한 페티시즘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스핑크스를 구상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작품으로써 구체화시켜 나간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핑크스, 팝트 파탈, 페티시즘, 레이디 가가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 및 철학, 인문학, 사회경제학, 정신의학, 역사, 예술사를 연구한다.

둘째, 스핑크스는 가시적 물상으로 국한하며 현대적 변용의 연구대상과 작품사례 분석의 범위는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신화와 전설 및 스핑크스의 기원과 변천사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그 상징적 형태와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레이디 가가에 대해 각종 대중매체의 정보와 이미지,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셋째, 정신분석학적,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페티시즘을 이해하고 작품의 방향을 모색한다.

넷째, 자본주의 물신의 상징으로 상품(자동차, 캐릭터, 상표)과 화폐(금괴, 황금알, 신용카드), 레이디 가가의 물신적 특징으로 하이힐, 콘브라(cone bra), 연출된 육체 이미지로 가능한 많은 드로잉을 한다.

다섯째, 작품 연구의 형태는 A, B, C type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작품 A type의 특징은 하이힐의 변형으로서 Double Heels, B type은 2단 분리형 Cone Bra의 벽 부조, C type은 이질적 상징요소를 결합, 변형한 Figure 형태로 한다.

여섯째, 작품 제작에는 적절한 도자 재료와 성형기법, 장식기법을 모색하고 소성방법을 계획하며 사전에 모델링을 해보고 시편을 통해 결과를 얻어낸다.

일곱째, 작품 설치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작 방법에 대해 모색한다.

〈표 1〉 연구계획도표



6. 이론적 배경

1.3 스핑크스의 기원과 변천사

고대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야수나 괴물들이 각종 신화와 유물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과 실제 동물 혹은 각 동물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의 변형체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혹은 초능력을 꿈꾸는 인간적 갈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스핑크스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스핑크스(Sphinx)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그리스 시대지만 그런 형태를 한 괴물은 그보다 훨씬 이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설화에서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이집트어 표현인 ‘세세프 앙크(Shesep Ankh)’에서 비롯된 그리스어 스핑크스(Sphinx)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 혹은 동물의 머리를 가진 상(像)으로 그것 자체가 신성을 상징한다.¹⁾ 현재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대 스핑크스(The Great Sphinx)



[도 1] The Great Sphinx of Giza Egypt, ca. 2500 BC.

는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최대의 것으로서 전체 길이 약 70m, 높이 약 20m, 폭 약 4m에 달한다.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돌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석회암 바위산을 통째로 조각한 것인데 그 얼굴은 상당히 파손되어 있으나 카프레 왕(pharaoh Khafre) 생전의 얼굴이라고 한다. 앞으로 뻗은 앞다리 사이에는 투트모세 4세(Thutmose IV, 기원전 1400-1390년 재위)의 석비(石碑)가 있는데, 꿈속에 스핑크스가 나타나 모래 속에 묻혀있는 나를 꺼내주면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비문이 적혀있다. 이 스핑크스는 태양신의 상징으로서 숭배되었다.[도 1]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전래되었지만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는 오이디푸스(Oedipus) 신화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을 해치는 괴수로, 또 하나는 인간의 사후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우호적 기능으로 인식되었다.[도 2] 그리스형 스핑크스는 대개 상반신은 여자이고 하반신은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모습인데[도 3] 그리스인에게 스핑크스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보다 오히려 친근하고 상서로운 상징물로 더 많이 쓰인 것 같다.²⁾

1) 알베르토 실리오티, 박승규 역, (2004), 「고대 이집트: 신전, 인간과 신들」, 생각의 나무, p.135

2)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452880>

스핑크스는 아폴론 신전 및 여러 보고의 지붕이나 입구에 조상되었다. 아폴론 신전의 수호자 낙소스(Naxos)의 �핑크스는 기원전 570~56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높이 12미터에 이르는 높다란 원주(圓柱) 위에 얹어져 있었던 빼어난 예술품이다.[도 4] 그러나 인간을 해치는 괴수로서의 전설에 따르면 �핑크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Laios)를 벌하기 위해 헤라(Hera)가 보낸 괴물이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소포클레스³⁾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등장한 �핑크스를 들 수 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라는 청년이 테베(Thebae, 고대 이집트의 수도)에 왔을 때의 이야기다.

도시는 어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온통 소란스러웠다. 그 사건의 하나는 왕이 도적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도시 교외에 있는 언덕에 �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었다.

그 수수께끼란 “아침에는 다리 네 개, 낮에는 두 개, 밤에는 세 개로 걷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나라에서는 이 수수께끼를 푼 자는 죽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라는 포고를 낸 상태였다. 오이디푸스는 그 길로 �핑크스가 있는 언덕에 가서 이 수수께끼의 답이 ‘인간’이라고 답했다. 이리하여 그는 테베의 왕이 되었고, �핑크스는 수수께끼가 풀렸기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졌다.

소포클레스의 글에서는 이 부분을 서문으로 하여 오이디푸스 왕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특히 이 �핑크스 이야기에 대해서는 호메로스⁴⁾의 '오디세이아'에서도 언급될 만큼 유명한 에피소드로 알려져 있다.⁵⁾



[도 2] Sphinx(Greek), South Italian, 5th-4th century BC



[도 3] The Greek Sphinx, Attica, ca. 530 BC



[도 4] Sphinx of Naxos at Delphi Museum, ca. 570 BC

3) 소포클레스(Sophocles, 497~406 BC.) :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시인 중의 한명으로 꼽힌다.

4) 호메로스(Homer, 기원전 8세기 무렵) : 고대 그리스의 작가, 서사시 'Iliad'와 'Odyssey'의 저자.

5) 다케루베 노부야키, (2000), 「판타지의 주인공들」, 들녘, pp.93-97

19세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는 혼란스러운 욕망들로 뒤튼린 19세기 말을 만족시켜주기에는 너무나 통속적이고 단순한 것이었으므로 전통적인 도덕을 거부하는 모습은 성적 미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녀양성(Androgynie)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만든 합법화된 미학이라 할 수 있다. 모호한 성(性), 즉 '전형적으로 예술적인 성(性)'인 남녀양성이라는 소재는 19세기 문학과 회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⁶⁾

세기말의 혼돈과 탐미주의, 상징주의의 영향으로 팜므 파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핑크스는 예술가들에 의해 불가사의한 매력을 지닌 관능적인 요부로 변신하게 된다.

스핑크스와 팜므 파탈은 공통점이 많다. 스핑크스는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미끼로 던져 잔인하게 살해하는 괴물인데 팜므 파탈 역시 수수께끼 같은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비정함을 지녔다. 욕망과 공포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두 존재를 결합한 것이다. 상징주의 시대에 이런 여성의 이중성은 혼합체인 스핑크스와 대응되는 소재였는데 당시 스핑크스를 팜므 파탈로 묘사한 대표적인 화가는 귀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였다. 1864년 살롱전에 출품한 모로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는 관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도 5] 더없이 에로틱하면서도 혐오스런 팜므 파탈의 이중성을 스핑크스에 절묘하게 투영했기 때문이다.⁷⁾



[도 5] Gustave Moreau
「Oedipus & the Sphinx」 1864

19세기 상징주의 화가들에 의해 묘사된 스핑크스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앵그르의 스핑크스[도 6], 귀스타브 모로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소재로 한 여러 작품에 스핑크스를 그렸고[도 7] 슈투크의 스핑크스는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를 넘어 선 슈퍼 팜므 파탈로 등장하며[도 9] 크노프가 그린 스핑크스는 쾌락을 꿈꾸는 음흉한 스핑크스로 묘사되었다.[도 10]

평생 여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화가 뭉크(Edvard Munch)도 여자의 잔인한 속성을 스핑크스에 비유해 표현하였다.[도 8] 뭉크가 '스핑크스=여성'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불행한 연애를 경험하면서 여성은 곧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림 한가운데 벌거벗은 여자의 사악한 웃음, 붉은 머리카락, 짙은 화장, 벌거벗은 두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어두운 색채의 물줄기는 그녀가 남성을 파멸시키는 팜므 파탈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해서 19세기의 스핑크스는 악녀의 원형인 팜므 파탈로 분류되기에 이른다.

6) 길 상티, 신성림 역, (2002),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창해, pp.36-37

7) 이명옥, (2010), 「팜므 파탈」, 시공아트, pp.78-89



[도 6]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Oedipus et Sphinx」 1808



[도 7] Gustave Moreau
「Oedipus the Wayfarer」 1888



[도 8] Edvard Munch
「The Three Stages of Woman(Sphinx)」 1894



[도 9] Franz von Stuck
「The Kiss of the Sphinx」 1895



[도 10] Ferrand Khnopff 「L'Art ou des Carezses」 1896

1.4 페티시즘의 이해

페티시즘(fetishism)⁸⁾은 그 의미나 사용에 있어서 페티시(fetish)와 거의 유사하다. 그 사용의 예를 보면 페티시는 주로 형용사적 수식을 받아 특정한 태도나 현상을 지칭하며 페티시즘은 명사와 함께 쓰여 특정한 대상에 대한 페티시적 태도를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법적 사용의 제한이나 차이는 없으며, 대부분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18세기의 유럽은 계몽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던 시기로, 순수예술과 미적 판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의 철학자 Charles de Brosses에 의해 ‘페티시즘’이라는 용어는 만들어졌으며, ‘미학(aesthetic)’과 함께 신조어로 생겨났다.

페티시의 어원은 포르투갈어의 feitiço로, 성인의 유물, 염주, 십자가 등의 부적이나 주문을 뜻한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인들이 포르투갈인들이 전한 기독교의 상징적인 물건들을 숭배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류학적 연구에서 페티시는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안에 있는 정신을 지칭한다. 이러한 연구는 종교의 최초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원시 종교에서 가시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 존경, 숭배를 페티시즘이라고 하였다.

중세 유럽의 문학에서는 페티시를 마술적인 힘을 가진 대상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을 일컫기도 하였다. 물질은 자연의 힘을 함유하고 있어, 인간의 병을 치료, 치유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해 질수 있으며, 물건은 방어적 목적으로 악마의 저주에서 보호할 수 있고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상에서 페티시는 기원적인 의미에서 마술적이고 영적인 힘과 관계되며 비이성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물과 사물에 대한 숭배의 태도를 모두 지칭함을 알 수 있다.

페티시즘의 추가적인 정의의 내용은 도착적인 성과 관계된다. 이는 사물에 대한 숭배가 성적 욕망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페티시즘 정의의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수집가적인 집착의 의미이다. 수집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페티시즘적인 태도인데, 이는 소유에의 집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페티시즘은 근래의 문화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물에 대한 숭배가 소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욕망의 대상이 상품이나 화폐로 전이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페티시의 의미는 ‘사물에 대한 숭배’라는 기원적인 의미가 가지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페티시 대상물을 통해서 환상에 대한 욕구의 대체적인 만족을 구하는 구조이

8) 서기숙(1999), 「페션에서 페티시즘의 정신분석학적,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성적 이미지와 소비문화들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8

다. 그러나 이것의 모순은 근본적으로 얻을 수 없는 환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페티시의 본질 때문이다. 즉, 신의 힘이나 사랑, 권력 등은 환상의 일부분으로서 페티시 대상물은 제유적인 의미를 가지며, 환상에 대한 욕구는 대상물에 대한 집착으로 현실화되며 페티시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1.4.1 주물숭배의 대상으로서 �핑크스

주물숭배에서 주물은 인간이나 집, 부락 등을 지키고, 나쁜 주술이나 질병을 막으며, 건강과 부(富)와 풍작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핑크스는 원래 동물의 왕 사자에 대한 주물 숭배(fetishism)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보면, 사람 얼굴이나 신성한 동물(매, 양)의 머리에 사자의 몸을 결합한 이집트 형, 털이 많고 왕관을 쓰고 있다는 아시리아 형, 여자의 얼굴과 가슴, 독수리의 날개, 사자의 몸이 결합된 그리스 형이 있다. 용도에서는 왕권의 상징,



[도 11] The Great Temple of Amun at Karnak, with its row of Giosphinxes

수호신, 신전(神殿)의 장식, 무덤 장식, 마귀를 쫓는 벽사의 상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집트 카르나크의 대 신전에는 길 양쪽에 서로 마주보면서 수십 개의 �핑크스가 나란히 서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도 11] 초기에 주물숭배의 대상이던 �핑크스는 이후에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핑크스의 변화과정을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핑크스의 변화과정

Sphinx			
지역	이집트	그리스	유럽
시기	기원전 2500년경	기원전 500년경	19세기
성별	남성	여성	여성(팜므 파탈)
특징	사람의 머리(파라오) 동물의 머리(매, 양) 사자의 몸	여자의 얼굴과 가슴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	여자의 얼굴, 힘과 권력의 상징인 왕관, 무기처럼 날카로운 원뿔형 유방, 공격적으로 활짝 편 날개, 붉은 허리 장식, 날카로운 발톱 등
용도	주물숭배, 왕권의 상징	벽사, 파수꾼, 수호신, 무덤 장식	예술적 소재 상업적 소재

1.4.2 물신숭배의 대상으로서 슈퍼스타

물신숭배는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매혹적인 대상 자체와 그 대상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이르는 것으로, 마르크스9)의 ‘자본론’ 첫머리에 상품세계의 물신적 성격에 관한 저술이 나옴으로써 사회과학 용어로서 일반화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적인 생산체제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사회관계가 물상화 되며, 물상적 의존관계로 변질한다. 그래서 본래 인간이 노동에 의해 만들어내는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 상품, 화폐, 자본 등의 물질이 마치 고유의 힘을 지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상품, 화폐, 자본 등 인간노동의 생산물을 신앙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 이에 무릎을 꿇게 된다.

상품에는 ‘사물(상품)의 인격화’와 ‘인격의 사물화’ 사이의 대립적 모순이 내재한다. 상품의 물신적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이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독립적인 힘으로서 기능하는 반면에 인격은 오히려 사물의 지위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물신숭배라 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일상적 종교가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는 프로이트10)의 성적 물신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적인 대상이 물건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체된 대상을 성적으로 과대평가(숭배)하여 원래의 성적 목적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물신적 대상을 보거나 만지면서 성적인 흥분과 환상에 빠지게 되는데 주로 신발, 모피, 속옷 등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에 집착한다. 따라서 이것은 도착의 일종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대중매체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의식을 점령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 새롭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슈퍼스타의 모습은 멋있고 매력적이다.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자 욕망의 집결체이다. 사람들은 대중매체 속의 스타가 가공의 인물임을 알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친근감을 느끼고 욕망을 투사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문화상품 및 광고상품 등은 소유하지 못하는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대리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슈퍼스타는 인격체이기 보다는 살아있는 이미지 상품으로서 대량 소비되고 있는데 그중 미국의 팝스



[도 12] 표지모델로 등장한 레이디 가가

9)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 공산주의 혁명가, 역사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서 1867년 《자본론》을 저술하였다.

10)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타 레이디 가가(Lady Gaga)는 난해하고 도발적인 펌프 파탈 패션과 파격적인 쇼 퍼포먼스, 기행 그리고 그로 인한 핫이슈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MMVA¹¹⁾ 무대에서 선보인 불꽃가슴 퍼포먼스와 가슴이 뽕족하게 강조된 콘브라(cone bra) 의상은 펌프 파탈의 상징으로 팝스타 마돈나를 오마주(hommage)한 것이지만 그녀는 여성의 성적 상징물인 가슴을 부각하는 스타일, 즉 가슴 부분에 화염방사기나 라이트, 머신건 등 각종 독특한 조형물을 부착함으로써 모방을 통한 재창조를 이루어 냈다.[도 12]

레이디 가가는 생고기 드레스, 리본머리, 인공 뺨, 틀니와 문신, 염기적인 높이의 구두로 다른 스타들과 차별화되고 있는데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소수인 동성애자를 옹호하며 성 정체성에 있어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도 13] 또 자신을 자웅동체라 표현하고 팬들은 자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음악을 사랑한다며 양성적인 면을 강조한다. 마돈나가 남성애에 의해 억압된 여성의 성을 해방시켰다면 레이디 가가는 여성과 남성, 동성과 이성 등 성 정체성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²⁾



[도 13] 레이디 가가의 패션과 무대 퍼포먼스

패션에서 페티시즘을 성적 이미지와 소비문화로 구분하여 연구한 서기숙¹³⁾은 소비문화에서의 물신주의를 육체와 젊음에 대한 물신, 상표에 대한 물신, 수집적 물신으로, 성적 이미지로서의 물신주의를 에로틱 물신, 이성 복식 착장의 물신으로 구분하여 각각 고찰하였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물신적 특징들 중에서 레이디 가가의 물신적 특징을 하이힐, 콘브라, 연출된 육체의 세 가지로 도출하고 그것을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11) MMVA(Much Music Video Awards) : 1990년부터 매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뮤직비디오상 시상식이며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음악과 퍼포먼스를 펼친다.

12) 백선희(2019), 「레이디가가의 디자인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0-121

13) 서기숙, *op. cit.*, pp.31-65

〈표 3〉 현대 자본주의와 레이디 가가의 물신적 특징

	에로틱한 페티시즘	소비문화에서의 페티시즘		
		육체와 젊음	상표	수집
자본주의	신체 일부의 변형(문신, 피어싱 등) 패션 아이템(하이힐, 코르셋, 속옷 등) 촉각적 재료(모피, 가죽, PVC 등) 양성성	외모와 연출된 육체 패션, 미용 Fitness, 의료	유명 상표 명품 사치품	상품 화폐
레이디 가가	하이힐 콘브라	연출된 육체		

1.5 스핑크스와 페티시즘에 관한 작품사례 분석

기원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스핑크스가 유물로 전해지고 또 발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 스핑크스의 기원과 변천사에 대해 고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980년대 이후 현대미술에서 스핑크스를 주제로 다루었던 작가의 작품사례를 분석해 보고 본 연구에 참고적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니키 드 생팔, 페르난도 보테로, 마크 퀴온은 변형된 인체를 탐구한 작가들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페티시즘 성향의 스핑크스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들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은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로서 대중을 향한 미술을 지향하고 여성 특유의 기법으로 곡선과 유선형의 페미니스트적 색채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동화적 색채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의 작품에 쉽게 다가가게 하는 특성일 뿐 아니라, 작품의 기법상 드러난 또 하나의 여성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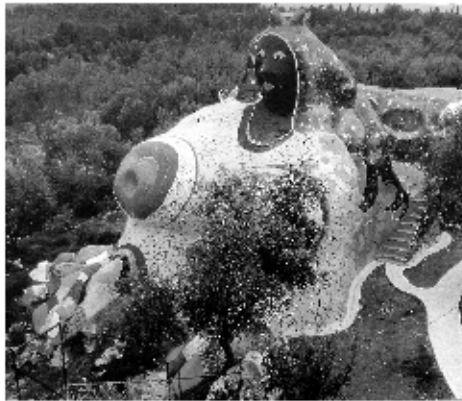
니키 드 생팔의 작품에서는 개인적 삶의 이야기나 옛날이야기, 설화 등의 소재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작품 초기에는 페미니스트로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났었지만 이후 대표작 ‘나나’시리즈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임신한 친구를 보고 영감을 얻어 시작하게 된 ‘나나’시리즈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의식을 애기하는 것이 아닌 여성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닌 이미지로 변화하게 된다.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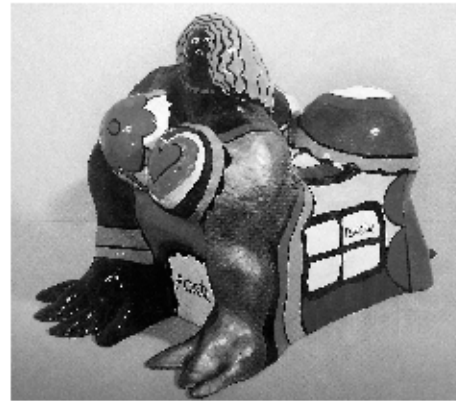
[도 14] Niki de Saint Phalle
「Black Venus」 1965

Venus[도 14] 작품에는 검은 피부를 가진 거대하고 뚱뚱한 나나가 가슴과 복부를 한껏 과장한 수영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활력 넘치는 검은 나나는 여성 또는 흑인이 폄하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반어적 비판이다.¹⁴⁾

또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위치한 ‘타로공원(The Tarot Garden)’은 20년간 만든 그녀의 역작으로 손꼽히는데 그 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큰 작품은 ‘The Empress’, 일명 ‘스핑크스’라고 불리는 건축물이다.[도 15] 니키는 1983년 이 건물 내부에 살기 시작, 이후 7년 동안 이 건물은 그녀의 집인 동시에 작업실로 사용된다. 이 건물의 외벽작업에는 거울과 유리 모자이크, 세라믹 타일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 [도 16]와 같은 스핑크스 작품도 있다.



[도 15] Niki de Saint Phalle
「The Empress」 1983



[도 16] Niki de Saint Phalle
「Le sphinx」 1989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Angulo)는 콜롬비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이다. 그는 과장된 인체 비례와 뚱뚱한 모습으로 묘사된 인물 그림과 조각상으로 유명하며 독특한 양감이 드러나는 정물 등을 통해 시각 영역에 있어서 즉각성을 부여하고 있다.¹⁵⁾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남미의 정서를 표현하고, 옛 거장들의 걸작에서 소재와 방법을 차용하여 패러디한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도 17] 또 고대 신화를 이용하여 정치적 권위주의를 예리하게 고발하고, 현대 사회상을 풍자한 작품도 다루고 있다.

보테로는 지금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06년에 발표한 스핑크스는 보테로 특유의 개성이 돋보이는 조각상으로서 고대 이집트 스핑크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날개가 달린 사자와 여자의 복합체는 그리스형에 더 가깝다.[도 18]

14) 최효진(2013), 주변인으로서의 신체 특징적 조형요소와 인물상 연구 : 마크 퀸, 니키 드 생팔, 페르난도 보테로 3人を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7-50

15) *ibid.*, p.57



[도 17] Fernando Botero
『More Lisa』 1977



[도 18] Fernando Botero
『Sphinx』 2006

마크 퀸(Marc Quinn)은 영국의 현대미술가이다. 1991년 자신의 피를 뽑아 두상으로 만든 작품 ‘셀프(Self)’를 통해 일약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대표작가가 되었다.[도 20]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졌던 ‘임신한 엘리스 래퍼(Alison Lapper Pregnant)’ 등 그가 천착하는 주제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삶과 고귀한 정신이다.¹⁶⁾[도 19]

신체적 장애는 예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기괴하고 흉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마크 퀸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절정으로 여겨지는 고전의 조각상들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며 한정된 미적 범주를 확산시켰다.¹⁷⁾ 이후 2006년 스타작가와 패션 아이콘인 케이트 모스(Kate Moss)의 합작이라는 타이틀 아래 패션잡지에도 선보이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브론즈상의 제목은 ‘스핑크스’였다.[도 21] 그는 현대 버전의 스핑크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케이트 모스의 손과 발, 얼굴을 직접 캐스팅 해서 제작했고 요가 포지션들은 전문가의 포즈를 그대로 표현해서 현대 버전의 미스테리한 조형을 연출해 냈다. 또한 케이트 모스를 우리시대 미의 아이콘이자 현대의 비너스라 지칭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육체와 내면, 욕망과 시선에 대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조각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도 19] Marc Quinn
『Alison Lapper Pregnant』 2005



[도 20] Marc Quinn
『Self』 1991

16) 출처 <http://www.doopedia.co.kr>

17) 최효진, *op. cit.*, p.44



[도 21] Marc Quinn 「Sphinx」 2005

7. 작품제작 및 해설

본 연구자는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페티시즘은 가시적 대상에 대한 숭배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스핑크스의 기원과 변천사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분석하고 스핑크스의 현대적 변용을 작품화하고자 한다. 작품 제작에 앞서 그것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스핑크스와 페티시즘의 관계 분석표

페티시즘	고대	19세기	현대
가시적 대상	스핑크스		
	주물	팝므 파탈	상품
숭배의 속성	수수께끼	성적 판타지	슈퍼스타
	왕 vs 죽음	욕망 vs 공포	이상 vs 현실

본 연구에서 작품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갈수록 외모와 소유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의 ‘인체의 상품화’와 ‘상품의 인격화’라는 자본주의 페티시즘의 이중성을 주제로 한다. 제작된 모든 작품은 스텝크스이고 이는 자본주의 물신과 레이디 가가의 물신적 특징의 결합 변형체로서 이중성의 이미지를 가지며 A, B, C type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작품 A type의 특징은 하이힐의 변형으로서 Double Heels, B type은 2단 분리형 Cone Bra의 벽 부조, C type은 이질적 상징요소를 결합, 변형한 Figure 형태로 제작한다. 앞의 표에 근거한 작품 도표는 아래와 같다.

<표 5> 작품 도표

구 분	Sphinx		
	A type	B type	C type
	Double Heels	2단 분리형 벽 부조	Figure
페티시즘 주 제	상품의 인격화	인체의 상품화	
표 현	하이힐의 의인화	인체의 절편화 ¹⁸⁾	인체의 상품화
자본주의 물신	상표 (맥도날드, 애플, 스타벅스)	상품(인체)	상품(자동차, 캐릭터, 상표) 화폐(금괴, 신용카드)
레이디 가가의 물신	하이힐	콘브라	연출된 육체

18) 서기숙, *op. cit.*, p.48

1.6 작품 A type_ Double Heels

1.6.1 작품의 구상

본 작품은 자본주의 페티시즘의 속성들 중에서 먼저 ‘사물(상품)의 인격화’를 표현하는 작업으로서 레이디 가가의 대표적 상징인 높은 하이힐을 모티브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주체로 떠오른 여성은 자기표현이 과감하다. 그리고 끝 모를 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서 하이힐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 같다. 하이힐은 두 개의 힐(Double Heels)로 진화하고 마침내 직립보행을 시작한다. 본 연구자는 하이힐을 의인화하여 외모의 관능성을 표현하고 적극적인 소비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왕의 이미지와 글로벌 브랜드의 상표를 차용하고 복합매체를 적용하고자 한다.

1.6.2 제작과정

1.1.1.1 소지

작품 제작에 사용된 소지는 백조형토로서 백색도가 낮고 샤모트 입자가 거칠어 성형이 까다롭지만 가소성이 좋고 조형작품의 건조 및 소성에서 변형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1.1.2 성형

작품성형에는 가압성형 및 입체 판 성형기법 등을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하였다. 작품의 형태적 특성상 하이힐 부분의 기초 성형이 매우 중요하다.[도 22] 작품 전체의 하중을 고려하여 무게중심을 잡고 소지의 수분과 건조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성형해 나가야 한다. [도 23] 동일한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조형해야 하는 경우, 점토로 원형을 제작하여 석고 틀을 제작한 다음 거기에 점토판을 눌러서 찍어내는 가압성형 방식이 적합하다.[도 24]

본 연구자는 복잡하고 큰 입체 조형물을 도자 조형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성형 후 속파기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개구부가 소성하는 동안 수축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잦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코일링을 시도해보았으나 복잡하고 큰 형태로 인해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어 조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도판기를 이용해 일정한 두께의 얇은 판을 밀어서 적당한 길이로 재단한 다음 밴딩(Banding)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성형하기 시작했다.[도25] 이런 입체 판 성형(Slab Built)은 편청, 코일링의 자유성형과 판 성형이 집약된 방식으로 효율적이다.



[도 22] 하이힐 기초 성형



[도 23] 하이힐 판 성형



[도 24] 반복적 모티브의 가압성형



[도 25] 출판 재단

1.1.1.3 색채 장식 및 유약

작품의 색채 장식으로는 중화도 Duncan 유약을 사용하였고 금속성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Duncan Ultra Metallics™를 적용하였다.

시판되고 있는 중화도 Duncan 유약 중에서 강렬한 원색의 Envision Glazes™나 반짝임이 있는 Shimmer Glazes™를 선택하였고 Primer로써 Cover-Coat™를 최초로 도색한 다음에 유약을 덧발라 강렬하고 선명한 발색으로 화려함을 표현하였다.<표 6>

금속성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약의 한계와 시판되는 중화도 유약의 생산규제 문제로 인해 타 재료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판되는 아크릴 제품으로 시편을 제작하고 중화도 투명유를 입혀 1000℃에서 테스트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발색이 불안정하고 기물의 표면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비소성 아크릴 제품으로서 Duncan Ultra Metallics™를 작품제작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특수효과를 위해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1.1.4 소성

작품소성은 전기가마를 이용한 산화소성이다. 초별기물의 유약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 1000℃ 초별 소성한다. 유약은 강렬하고 선명한 발색의 중화도 Duncan 유약을 선택하여 두껍게 시유한 다음 1000℃ 재별 소성한다.

소성할 때에는 작품형태의 특성상 뾰족한 하이힐 부분의 하중이 소성 중 기물의 수축방향과 다르므로 똑같은 소지의 흙판을 작품 밑에 깔아주어야 소성으로 인한 하이힐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표 6> Duncan사의 중화도 유약

색 상	분 류	변 호	색 상 명
	Satin Glazes	SN352	White
	Envision Glazes	IN1670	Sun Yellow
	Envision Glazes	IN1206	Neon Red
	Envision Glazes	IN1034	Larkspur
	Envision Glazes	IN1014	Galaxy Blue
	Shimmer Glazes	SH507	Sapphire
	Cover-Coat	CC101	Arctic White
	Cover-Coat	CC194	Red Wagon
	Cover-Coat	CC193	Hunter Green
	Cover-Coat	CC119	Charcoal
	Ultra Metallics	UM951	Solid Gold
	Ultra Metallics	UM956	Silver

1.6.3 작품 설명

[작품 1, 2] Friday Heels

본 작품은 페티시즘에서 '사물(상품)의 인격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으로서 현대여성을 하이힐 형태의 스펅크스로 표현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주체로 떠오른 여성은 당당하고 자기표현이 과감하다. 작품에서는 강한 색상과 유기적 형태로 여성성을 극대화하고 두 개의 힐(Double Heels)로 하이힐을 의인화하여 외모의 관능성과 적극적인 소비능력을 과시한다. 금색 및 은색의 금속성 차가움으로 야수의 공격적 상징인 뿔을 반복 조형함으로써 힘과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표현하였으며 현대 물신숭배의 상징으로 벤츠(Benz) 자동차의 상표를 차용하여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작품 1] Friday Black Heels(Left)

500 x 270 x 570 mm

[작품 2] Friday Red Heels(Right)

500 x 270 x 570 mm

[작품 3, 4, 5] Shopping Heels

본 작품은 페티시즘에서 '사물(상품)의 인격화'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작품으로서 소비자로서 현대인을 하이힐 형태의 스펅크스로 표현한 것이다.

끝 모를 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서 하이힐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 같다. 두개의 힐(Double Heels)로 진화한 하이힐은 이제 거침없이 소비한다. 이것은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원색의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생물의 감각기관인 촉수는 나팔모양, 원기둥 모양, 고깔 모양으로 움직이고 이런 동일한 모티프를 반복 조형함으로써 여성이 감각적 소비주체로서 현대사회의 권력자임을 나타낸다. 현대 물신숭배의 상징으로 스타벅스(Starbucks), 애플(Apple), 맥도날드(Mcdonalds)의 글로벌 브랜드의 상표를 차용하여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작품 3] Shopping Heels for McDonalds(앞, 뒤)

520 x 310 x 580 mm



[작품 4] Shopping Heels for Starbucks(앞, 뒤)
520 x 320 x 58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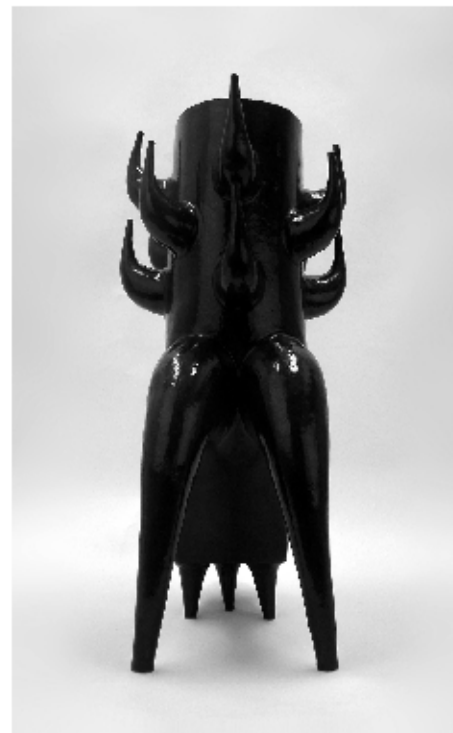
[작품 5] Shopping Heels for Apple(앞, 뒤)
520 x 280 x 630 mm

[작품 6] Lady Duchamp

본 작품은 페티시즘에서 '사물(상품)의 인격화'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작품으로서 현대인의 성적 페티시즘을 하이힐 형태의 스펅크스로 표현한 것이다.

남녀 성별(Gender)이란 발생과 동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선택 가능한 것이다. 현대미술의 아버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Rose Se'lavy라는 여자로 분장한 사진을 통해 성적 정체성마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 혹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에 콧수염을 그려 놓고 언어유희와 젠더파괴를 즐겨하였다. 본 작품은 이러한 마르셀 뒤샹을 하이힐 형태의 스펅크스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던 하이힐은 이제 스스로 생명을 얻어 움직이고 심지어 완벽함에 다가서려는 듯 양성적 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하이힐을 의인화한 것으로 여성의 관능성을 극대화 한 유기적 형태의 Double Heels에 콧수염과 빨 장식을 함으로써 존엄성을 가진 양성적 인간을 표방하고 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보라색 인격체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6] Lady Duchamp(앞, 뒤)

330 x 450 x 620 mm

1.7 작품 B type_ Cone Bra

1.7.1 작품의 구상

본 작품은 앞서 '사물(상품)의 인격화' 작업에 이은 '인체의 상품화' 작업이다. 이상적 육체에 대한 인간의 갈망으로 몸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상품화 된다. 머리와 몸으로 2단 분리된 레이디 가가는 또다시 머리카락, 얼굴, 원추형 가슴(cone bra), 손톱으로 절편화 된다.

작품의 형태는 그리스 신전에서 여인상(女人像)으로 된 돌기둥, 즉 카리아티드(caryatid)를 모티브로 한 것이며 작품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연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단 분리형 벽 부조를 계획한다. 제작에 앞서 작품도면을 설계하고 흙판을 재단하여 잘라 붙이는 계단구조로서 제작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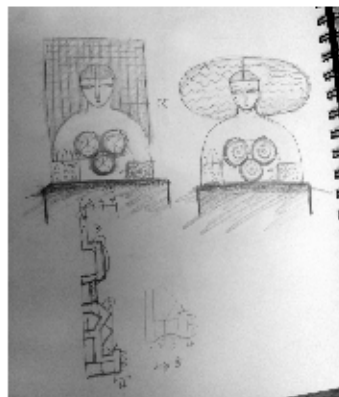
1.7.2 도면의 활용

1.1.1.5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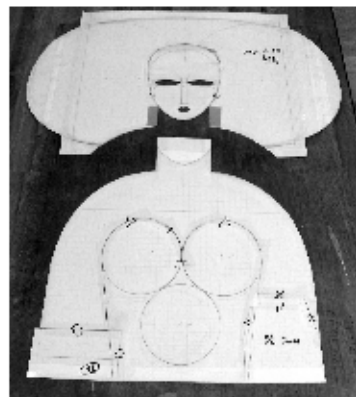
벽 부조형 스펙크스를 위해 평면형 머리카락, 콘브라, 총알형 발톱이 있는 일러스트를 드로잉하였다.[도 26] 콘브라는 기본적인 원추형에 다이아몬드 형으로 각을 친 것과 둥고선 형으로 계단을 낸 두 가지 스타일로 디자인하고 제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면 제작에 들어갔다.

1.1.1.6 도면 제작

본 작품은 Head와 Body 분리형 구조이며 벽면 부착형이다. Head와 Body의 결합부위인 목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기획한다. 도면에서 각 부분별로 분리와 결합이 용이하도록 잘 표시해 두고 도면 가장자리에 방수테이프를 붙여 내구성을 높인다.[도 27]



[도 26] 콘브라 드로잉



[도 27] 2단 분리형 구조의 도면 제작

1.7.3 제작 과정

1.1.1.7 소지

작품 제작에 사용된 소지는 백조형토이다.

1.1.1.8 성형

먼저 흙판을 넓게 밀어서 그 위에 도면을 놓고 재단한 다음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도 31] 작품성형에는 가압성형 및 입체 판 성형기법 등을 이용한다. 콘브라는 몰레성형을 통해 기본형을 제작하여 석고 틀을 제작한 다음 거기에 점토판을 눌러서 찍어내는 가압성형 방식으로 제작한다.[도 30]

Head 부분은 벽에 부착될 부분으로서 부착방법을 계획해 둔다.[도 28] 흙판과 얼굴을 접합한 단순한 구조이나 건조 시 수축방향이 달라서 흙판 내부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흙판을 뒤집어 말릴 수가 없으므로 면이 뒤틀리지 않도록 건조과정에서 기물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도 29] Body는 전시대 위에 세워 둘 부분으로서 제작에서는 벽면과의 직각 및 Head와 Body의 결합부위인 목 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도 32] 건조와 수축, 소성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형에 대비하여 언제나 목 받침대를 받쳐두고 결합부분의 수축과 왜곡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도 28] 벽면 부착방법에 대한 계획



[도 29] Head 건조과정



[도 30] 가압성형한 콘브라



[도 31] 흙 재단 후 접합



[도 32] 결합부분인 목의 받침대

1.1.1.9 색채 장식 및 유약

작품의 색채 장식으로는 테라 시질라타와 고화도 색유를 사용하였고 금속성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Duncan Ultra Metallics™를 적용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3.3.2.3에서 하도록 하겠다.

1.1.1.10 소성

작품소성은 전기가마를 이용한 산화소성이다. 1000℃ 초벌 소성한 다음 고화도 색유약을 분무 시유하고 1250℃ 재벌 소성한다.

고대유물의 발굴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테라 시질라타를 덧발라 부분적으로 스크레치한 다음 삼벌 소성한다. 이때 재료별 소성온도 차이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3.3.3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소성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형에 대비하여 Body의 목 부분에는 언제나 목 받침대를 받쳐두고 주의를 기울인다.

1.7.4 작품 설명

[작품 7, 8] Cone Bra

본 작품은 페티시즘에서 ‘인체의 상품화’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카리아티드(caryatid)를 모티브로 한 2단 분리형 벽 부조 스펅크스이다.

현대인은 소비활동을 통해 획득하고 연출한 외모지상주의로 변해간다. 또한 인간의 몸은 이상적 육체에 가까워지기 위해 각 부분이 상품화 된다.

본 작품은 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욕망의 집결체인 슈퍼스타 레이디 가가를 모델로 머리와 몸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 얼굴, 원추형 가슴(cone bra), 손톱 부분으로 흙 판을 나누어 재단하고 접합하는 방식을 통해 계단구조로 완성되었다.



[작품 7] Blue Cone Bra

Head_ 440 x 330 x 130 mm/ Body_ 370 x 170 x 380 mm



[작품 8] Red Cone Bra

Head_ 500 x 320 x 130 mm/ Body_ 370 x 170 x 380 mm

전시장에서 작품의 설치를 위해서는 작품 이외에 콘솔형 좌대와 일러스트 접착시트를 별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스 기둥 일러스트를 접착시트에 컴퓨터 커팅하여 전시장 벽면에 붙인 다음 콘솔형 좌대와 함께 일렬로 벽 쪽에 위치한다.

2단 분리형 벽 부조 스펅크스는 Head와 Body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Head를 벽면에 걸기 위해 두 개의 나사못을 박아 두어야 한다. Head를 벽에 걸고 Body를 좌대 위에 세워 목 부분에서 결합한다. 이것은 연구자가 작품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연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다.[도33]



[도 33] 콘브라 전시장면

1.8 작품 C type_ Figure

1.8.1 작품의 구상

본 작품은 갈수록 외모와 소유에 집착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체의 상품화’를 표현한 작업들이다. 작품 B type의 연장선으로 레이디 가가의 몸이 연출된 육체로서 절편화 되고 상품이나 화폐와 같은 이질적 요소로 대체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다.

고대 유물로 전해지는 전통적 스팅크스 형태에 레이디 가가의 모습을 결합한 것인데 그 형태적 특징은 고대 이집트 형이기도 하고 그리스 형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페티시즘의 매혹적이면서도 야수적인 이중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제작에서는 고대 스팅크스의 재료적 특징을 표방하며 흙의 자연 질감을 작품 속에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1.8.2 제작 과정

1.1.1.11 소지

작품 제작에 사용된 소지는 백조형토이다.

1.1.1.12 입체 판 성형기법

본 연구자는 작품제작에 앞서 드로잉을 세심하게 분석한 다음 흙의 양과 작품의 하중을 고려하여 좌대를 설계하였다.[도 34] 복잡하고 큰 입체조형물을 도자조형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두께의 넓은 판을 밀어서 적당한 길이로 재단한 다음[도 35] 밴딩(Banding)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성형하는데[도 36] 이런 입체 판 성형기법은 편청, 코일링의 자유성형과 판 성형이 집약된 방식으로 효율적이다.[도 37]



[도 34] 스팅크스 좌대의 이쥬 설계



[도 35] 본격적인 판 성형작업



[도 36] 일정한 두께의 밴딩 작업



[도 37] 코일업으로 성형 마감

1.1.1.13 색채 장식 및 유약

작품의 색채 장식으로는 테라 시질라타와 고화도 색유를 사용하였고 금속성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Duncan Ultra Metallics™ 혹은 아크릴 물감을 적용하였다.

테라 시질라타는 백색, 적색 모두 시판되는 제품(석산도재)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고화도 색유는 투명유(대원도재 D5000, 비중 42)와 가루 안료(석산도재, 고화도)를 조합하여 작품에 필요한 색상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도 38] 우선 투명유와 안료의 적정 혼합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을 제작하여 결과를 예상하였는데[도 39] 그것은 <표 7>와 같다.



[도 38] 투명유 (대원도재 D5000) 비중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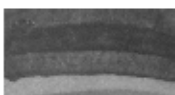


[도 39] 고화도 색유의 시편제작

1.8.3 재료별 소성온도 차이의 활용

작품 소성방법으로는 대차식 전기가마에서 1000-1250℃ 산화소성으로 재벌 후 삼벌 소성하여 마무리한다. 이때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 장식기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표 7〉 고화도 투명유와 안료의 조합비

색 상	투명유(g)	안료(g)	색 상 명
	100	10	D. Red
	100	5	D. Red
	100	5	L. Orange
	100	5	D. Yellow
	100	5	Y. Green
	100	5	L. Green
	100	5	M. Blue
	100	5	T. Blue
	100	5	Cobalt
	100	5	G. Purple
	100	5	L. Pink
	100	10	Co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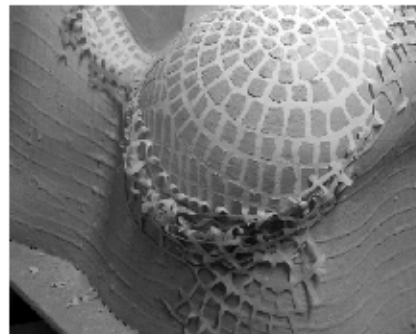
1.1.1.14 라텍스를 이용한 표면 장식기법

테라 시질라타와 고화도 색유의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 장식기법으로서 액상 라텍스(latex)와 펜 타입 튜브를 준비한다.[도40]

초벌 기물 표면에 장식도안을 그리기 위해 라텍스를 주입한 펜 타입의 튜브를 짜면서 드로잉한다. 라텍스의 컨트롤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잘 조절하면 세밀하고 깔끔한 Masking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드로잉이 다 마르면 그 위에 고화도 색유를 두껍게 칠한 다음 핀셋으로 라텍스를 뜯어낸다.[도41]



[도 40] 라텍스 튜브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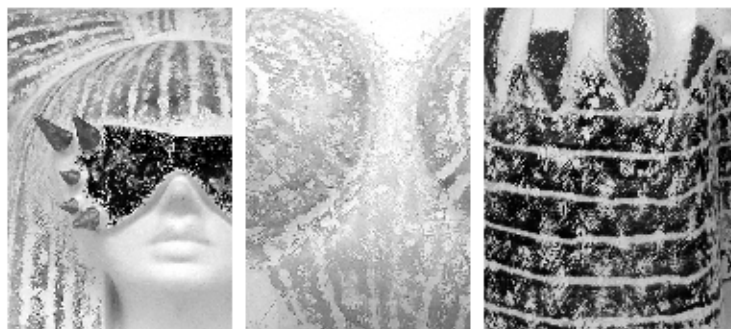


[도 41] 라텍스 뜯어내기

1.1.1.15 테라 시질라타 vs 고화도 유약

라텍스를 이용한 표면 장식으로 고화도 유약이 입혀진 기물을 1250℃ 재벌 산화소성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재벌 기물의 표면에 얇은 Embossing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벌을 마친 기물을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기물 전체에 테라 시질라타를 고르게 분무한 다음 장식도안 부분(Embossing)을 사포로 긁으면 도안(색유약, Glossy)만 드러나게 된다. 이후 1000℃로 삼벌 소성하여 테라 시질라타를 표면에 안착시키면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 장식기법이 완성된다.[도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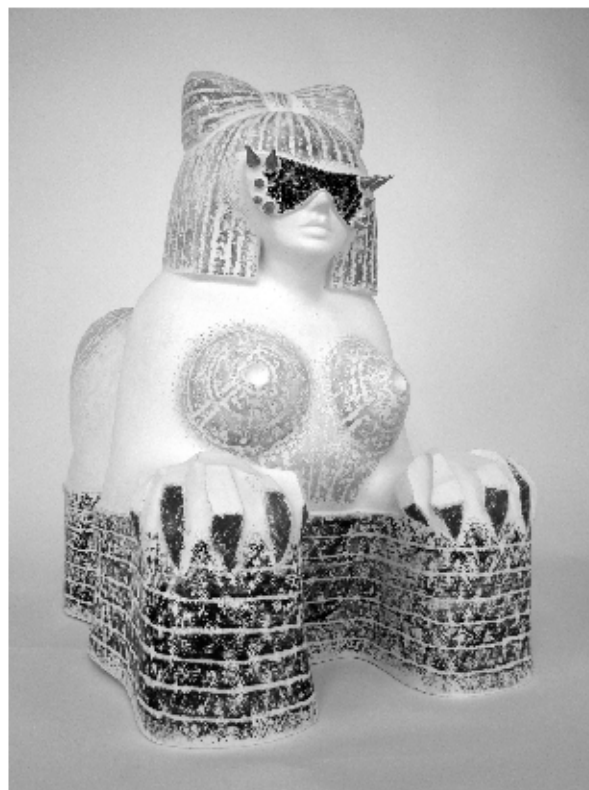
[도 42]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장식기법

1.8.4 작품 설명

[작품 9] Trans-Gaga

본 작품은 페티시즘에서 '인체의 상품화'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파라오의 머리에 사자의 몸을 결합한 것에서 현대 물신숭배의 대상인 슈퍼스타 이미지로 대체한 작업이다. 페티시즘에서 슈퍼스타는 연출된 육체의 이미지상품이다. 그들은 실체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대중매체 속에서 상품이 되어 물신화되면 인격은 사라지고 이미지가 되어 부유하게 된다. 그것은 대중을 유혹하여 소비를 자극하는 이상과 욕망의 샘플로서 기능한다.

슈퍼스타 이미지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인데 변신의 귀재인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텝크스에 걸 맞는 슈퍼스타로 연구자에게 선택되었으며 자본주의 페티시즘의 매혹적이면서도 야수적인 이중성으로 작품화되었다. 특히 이 작품은 연구자가 2009년 MMVA 무대에서 선보인 불꽃가슴 퍼포먼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인데 작품제작에 이용된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장식기법은 유약과 테라 시질라타의 장식적 콤비네이션 효과로서 작품에 응용되었다.



[작품 9] Trans-Gaga

1000-1250℃ 산화소성/550 x 340 x 560 mm

[작품 10] Gaga Simpson

페티시즘에서 슈퍼스타는 연출된 육체의 이미지상품이며 대중을 유혹하여 소비를 자극하는 이상과 욕망의 샘플로서 기능한다. 본 작품에서 슈퍼스타 이미지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지 심슨(Marge Simpson)'이다.

유달리 길게 뻗은 파란 머리와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마지 심슨은 1989년 미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심슨 가족'의 엄마 캐릭터로서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연구자가 마지 심슨 분장을 하고 쇼 프로그램에 등장한 '레이디 가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애니메이션 같은 Fun & Story 상품의 페티시즘을 매혹적이면서도 야수적인 이중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제작에 이용된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장식기법은 유약과 테라 시질라타의 장식적 콤비네이션 효과로서 작품에 응용되었다.



[작품 10] Gaga Simpson

1000-1250℃ 산화소성/670 x 420 x 640 mm

[작품 11] Sphinx Capital

본 작품은 자본주의 페티시즘의 매혹적이면서도 야수적인 이중성을 날개가 있는 고대 그리스의 스피נק스 형태로 조형한 것이다.

페티시즘에서 슈퍼스타는 연출된 육체의 이미지상품이다. 그들은 실체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대중매체 속에서 상품이 되어 물신화되면 인격은 사라지고 이미지가 되어 부유하게 된다. 그것은 대중을 유혹하여 소비를 자극하는 이상과 욕망의 샘플로서 기능한다.

본 작품에서 슈퍼스타 이미지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인데 그 인체 각 부분들이 절편화 되어 구글 글래스, 자동차 라디에이터, 신용카드, 총알로 변하고, 번쩍이는 금괴 더미 위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한 채 앉아있다. 이것은 현대인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인체의 부분들이 점점 상품화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서 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물신숭배의 대상이 물건에서 상품이나 화폐로 전이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작품 11] Sphinx Capital

Sphinx_ 복합성형/1000-1250℃ 산화소성, 580 x 320 x 400 mm

Gold bar_ Slip Casting/1250℃ 산화소성, 80 x 155 x 40 mm

[작품 12] The Great Red

본 작품은 커다랗고 붉은 글래머 영웅의 스핑크스이다. 이것은 슈퍼스타가 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욕망의 집결체로서 그것이 가진 페티시즘의 단면을 작품화한 것이다.

페티시즘에서 슈퍼스타는 연출된 육체의 이미지상품이다. 그들은 실체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대중매체 속에서 상품이 되어 물신화되면 인격은 사라지고 이미지가 되어 부유하게 된다. 그것은 대중을 유혹하여 소비를 자극하는 이상과 욕망의 샘플로서 기능한다.

작품에서 슈퍼스타 레이디 가가의 몸은 영웅 캐릭터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체가 점점 상업화의 도구로서 절편화 되고, 상품화 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고대 이집트 스핑크스의 존엄을 표방한 입체 조형으로서 작가는 표면에 붉은색 테라시질라타(Red Terra Sigillata)를 두껍게 장식하여 유약을 배제한 흙의 자연 질감을 작품 속에서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작품 12] The Great Red

1000-1100℃ 산화소성/510 x 870 x 665 mm

8. 결 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고대인의 주물숭배에서 현대의 물건숭배에 이르기까지 페티시즘의 역사도 스펅크스의 역사와 같아왔다. 결국 ‘사물에 대한 숭배’라는 기원적인 의미가 가지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힘든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일단 부정, 회피, 왜곡하며 간편한 이상을 좇게 되는데 그 이상이 고대인에게는 주물로, 19세기에는 팜프 파탈이라는 성적 판타지로,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슈퍼스타라는 이미지상품으로 그 대상의 모습이 변해왔을 뿐이었다. 또한 고대인은 스펅크스와 같은 주물에 수수께끼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19세기 상징주의 화가들은 그 수수께끼를 팜프 파탈의 이중성으로 대체하였다. 이 이중성은 바로 숭배현상을 일으키는 조건이자 페티시즘의 속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작품으로 표현된 스펅크스들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써 실재하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 만연한 페티시즘의 실체라 사료되어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작품 A type은 기존 하이힐에서 하나의 힐을 두 개의 힐로 표현하여 의인화한 작업으로서 단순한 형태의 반복에서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배우고 확장해 나가는 창작의 과정 전체가 연구자에게는 무척 흥미롭고 즐거웠다.

작품 B type은 작품과 전시공간을 조형화하여 2단 분리형 벽 부조로 성형하였는데, 설치를 위하여 콘솔형 좌대와 일러스트 접착시트를 별도로 제작하여 작품을 연출하였다.

작품 C type의 라텍스를 이용한 유·무광의 대비적 표면장식기법은 소성온도의 차이를 이용한 복잡한 기법이지만 유약과 테라 시질라타의 장식적 콤비네이션 효과로서 작품에 효과적으로 응용되었다.

작품으로 제작된 세 가지 타입의 스펅크스 즉, 레이디 가가의 하이힐, 콘브라, 연출된 육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페티시즘의 가시적 대상이며, ‘상품의 인격화’, ‘인체의 상품화’라는 주제는 페티시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페티시즘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1]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2005).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 물신숭배의 허구와 대안」, 동아시아.
- [2] 다케루베 노부야키. 임희선 역. (2000). 「판타지의 주인공들」, 들녘.
- [3] 슈테파니 슈뢰더. 조원규 역. (2007). 「여신이여, 가장 큰 소리로 웃어라 : 니키 드 생팔 전기」, 세미콜론
- [4] 알베르토 실리오티. 박승규 역. (2004). 「고대 이집트 : 신전, 인간과 신들」, 생각의 나무
- [5] 이명옥. (2010). 「팜므 파탈」, 시공아트.
- [6] 정은미. (2002). 「화가는 왜 여자를 그리는가」, 한길아트.
- [7] 정재서, 전수용, 송기정. (2008).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8] 존 A. 샌포드. 노혜숙 역. (2013). 「우울한 남자의 아니마. 화내는 여자의 아니무스」.아니마.
- [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1996).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 [10] 질 상티. 신성림 역. (2002).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창해.
- [11] 칼 마르크스. 손철성 역. (2009). 「자본론」, 풀빛.
- [12] Pontus Hulten. (1995). 「Niki de Saint Phalle」, Verlag Gerd Hatje.

학위논문

- [1] 박주희.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래머스타일의 미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백신희. (2013). 「레이디가가룩의 디자인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서기숙. (1999). 「패션에서 페티시즘의 정신분석학적,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성적 이미지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임현주.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최효진. (2013). 「주변인으로서의 신체 특징적 조형요소와 인물상 연구 : 마크 쾨니키 드 생팔, 페르난도 보테로 3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황민희. (2008). 「대중스타 이미지를 통한 물신화 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웹사이트

- [1] <http://www.google.co.kr>
- [2] <http://www.doopedia.co.kr>
- [3] <http://en.wikipedia.org/wiki/Sphinx>
- [4]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3s1342a
- [5] <http://www.mythindex.com/greek-mythology/S/Sphinx.html>
- [6] <http://www.theoi.com/Ther/Sphinx.html>
- [7] <http://blog.naver.com/kosfami/40004973646>
- [8] <http://www.marquinn.com>
- [9] <https://dearkitty1.wordpress.com/2006/07/02/botero-exhibition-abu-ghraib-torture-men-women-horse-cat-lynx-and-escher/>
- [10] <http://emhotep.net/2009/10/24/locations/lower-egypt/giza-plateau-lower-egypt/the-great-sphinx-what-we-know-what-we-think-we-know-what-we-will-never-know/>
- [11] <http://www.dailian.co.kr/news/view/452680>

ABSTRACT

A Study of Formative Ceramics on Contemporary Sphinx and Fetishism

Baek, Ju Ha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Ceramic Art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d Fetishism, which means to deny the reality and replacing its thoughts and attitude with ideals, is recently seen in various fields, and when used as perverted sexual expression the meaning is limited. This paper looks into fetishism 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y looking at fetishism in B.C. to fetishism of today's consumer society and approach it.

In 2500 B.C. the Great Sphinx of Egypt was masculine and was a cult-figure of fetishism, however in 500 B.C., Sphinx of Greece is shown as a woman with wings and symbolism artists in Europe in 19th century portraits sphinx as femme fatal. Lady Gaga who is an icon of today's popular culture and leading consumer culture is the representative superstar of femme fatal. This means sphinx and Lady Gaga both have the image of femme fatal and this as leads to the fact that the two have in common with cult-figure of fetishism.

This paper will analyze the origin and the change of ancient sphinx and apply the symbolic shape and image to Lady Gaga who is a cult-figure of capitalism fetishism. This paper is to show the aspect of fetishism that is spread out in modern society by molding different symbolic element.

In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look at the change process of sphinx in ancient Egypt, Greece, and 19th Century, then drew three characteristic fetish of Lady Gaga's high heels, cone bra and staged body from fetish of modern capitalism.

There are three types of sphinx; A, B, C type, made as a work. Type A is named Double Heels, showing deformation of the high heel, Type B is separable wall relieve, and finally Type C is molding two disparate symbolic element to a deformed figure.

The main clay used in the works is white mixed clay, and as for the techniques three-dimensional slab built, press molding, multi-built and slip casting was used. To show the colors, terra sigillata, high fire color glaze, Duncan Mid-range glaze, non-firing acrylic paint, and more were used and outside decoration of contradistinctive of glossy vs matt was applied by using latex. As for the firing, the works were put in electric kiln firing for oxidation firing at 1000 ~ 1250℃ for glaze firing or 3rd firing.

In conclusion, by looking into the fetishism of the ancients and the modern, history of fetishism and sphinx walked the same path. When human face rough reality they tend to deny, avoid, or distort and follow the simple ideal which was a fetish to the ancients, sexual fantasy of femme fatal in 19th century, and image products of superstar in the modern consumer society, and only the target of the fetishism changed. The three types of sphinx is the visible object of the fetishism spread in modern society, and the topic of 'personifying a product' and 'commercialization of human body' exp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fetishism.

A life of human cannot escape from fetishism, the nature of finding things that cannot be seen from what can be seen.